

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5. 11. 6.(목) 07:00 ~ 22:00
- 상담건수: 460건

II. 주요의견 내용

○ 보도 호평(1명)

-프로그램명 : 「KBS 뉴스 9」 ‘해안가 마약 벌써 5번째...유입 경로 ‘오리무중’

-방송일시 : 2025. 11. 5.(수) 1TV (21:00-22:00)

뉴스에서 마약에 대해 보도했는데 잘하고 있다.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약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마음 아프다. 국가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, 언론에서도 마약 사건, 사고를 충실히 보도해 주기 바란다.

○ 방송 제언(1명)

-프로그램명 : 「주현미의 러브레터」

-방송일시 : 2R (월-일) (09:00-11:00)

시각장애인 청취자이다. 시각장애인들은 휴대폰으로 문자 쓰기가 어려운데,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문자 사연만 받기 때문에 사연 신청이 불가능하다.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은 간혹 우편으로 보낸 사연도 읽어준다. 이 점을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이 많다. 방송에서 손 편지를 보내도 된다고 종종 언급해 주었으면 좋겠다.

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- 없음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- 없음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IV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460건

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¹⁾	계
233	10	-	-	217	460

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239	157	6	-	-	58	460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67	393	-	460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381	3	34	42	460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【편 성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우리 집 금송아지」 - 후속 방송 요청 ○ 「TV는 사랑을 싣고」 - 후속 방송 요청 <p>【보 도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KBS 뉴스 9」 - 보도 호평 <p>【시사·교양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아침마당」 - 출연자 섭외 제언 <p>【연예·오락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개는 훌륭하다」 - 방송 제언 <p>【라디오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주현미의 러브레터」 - 방송 제언 ○ 「세상의 모든 음악」 - 선곡 호평 	<p>【방 송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6시 내고향」 - ‘어묵’ 연락처 문의 39건 ○ 「아침마당」 - ‘방송 정보’ 문의 11건 ○ 「개그 콘서트」 - ‘방청’ 문의 11건 ○ 「가요무대 40년, 여러분 감사합니다.」 - ‘재방송 편성’ 문의 10건 ○ 「2TV 생생정보」 - ‘오색 오곡밥 정식’ 연락처 문의 10건 <p>【기 술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난시청」 문의 3건 <p>【경 영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11건 ○ 「수신료」 문의 7건 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10건 ○ 「주차」 문의 3건 <p>【기 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42건

1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의견	세부내용
[시사·교양]	
출연자 섭외 제언	<p>○ 「아침마당」 ‘꽃피는 인생수업’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. 11. 6.(목) 1TV (08:25-09:30) - 목요일 코너를 항상 잘 보고 있다. 목요일마다 네 명의 의사선생님들이 출연해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,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다. 시청자와 교감을 하며 전달해야 하는데, 너무 서두르고 말을 빨리해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것 같다. 세 명 정도만 출연해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강연해 주었으면 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[연예·오락]	
방송 제언	<p>○ 「개는 훌륭하다」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TV (목) (21:50-23:10) - 요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데, 왜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.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고, 그럼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.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[라디오]	
방송 제언	<p>○ 「주현미의 러브레터」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R (월-일) (09:00-11:00) - 시각장애인 청취자이다. 시각장애인들은 휴대폰으로 문자 쓰기가 어려운데,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문자 사연만 받기 때문에 사연 신청이 불가능하다.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은 간혹 우편으로 보낸 사연도 읽어준다. 이 점을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이 많다. 방송에서 손 편지를 보내도 된다고 종종 언급해 주었으면 좋겠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
의견	세부내용
선곡 호평	<p>○ 「세상의 모든 음악」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FM (월-일) (18:00-20:00) - 퇴근할 때마다 듣는데 선곡이 너무 좋다. 본인의 사장님도 해당 방송을 항상 청취하시는데, 음악이 너무 좋다고 하신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